

글로벌 철강사 美 투자 줄이어 2030년 전후 공급과잉 ‘경고음’

韓·日·인도 등 주요기업 투자 발표
현지 진출로 고율관세 리스크 돌파
“고부가제품 중심 경쟁력 높여야”

미국의 고율 관세를 계기로 글로벌 철강사들의 현지 투자가 잇따르면서 2030년 전후 공급 경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규모 신규 설비 가동이 예정된 가운데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메사비메탈릭스가 아이오와주에 150억달러(약 20조4000억원)를 투자해 대형 제철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인도 아사르그룹 계열사인 메사비는 미네소타에서 채굴한 고품위 철광석 펠릿을 활용해 직접 환원철(DRI)·전기로(EAF)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오는 2030년 연산 750만t 규모로 상업생산을 시작해 최대 1000만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제철도 58억달러(약 8조원)를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연산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일관 제철소를 건설한다. 오는 4분기 착공해 2029년 양산을

목표로 자동차용 180만t과 일반용 90만t의 열연·냉연·도금강판을 생산할 예정이다.

일본제철도 지난해 US스틸 인수 과정에서 총 140억달러의 미국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오는 2028년까지 생산 인프라 등에 110억달러를 투자하고 신규 제철소 건설에 최대 40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이다. 현재 확정된 37억달러는 기존 US스틸 생산거점 개보수와 비커버스틸의DRI·고급강판 설비 보강 등에 집중됐다. 아르셀로미탈도 앨라배마주에서 연산 150만t 규모의 전기로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으로 투자가 몰리는 배경에는 높은 관세 장벽과 현지 생산의 사업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이후 3개 분기 동안 유럽연합(EU)의 대미 철강 수출은 34%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사비 투자 발표 당시 “50% 관세 부과 이후 철강 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모두가 현지에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산업연구 이재운 연구원은 “미국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자국 기업

이 단기간에 설비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해외 기업들이 현지 시장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미국 완제품 철강 소비의 18%는 수입산이다. 문제는 신규 설비가 집중가동되는 2030년 전후다. 미국 연간 생산량의 약 10%인 메사비의 최대 1000만t을 비롯한 증설 물량을 수요가 흡수하지 못하면 가격과 수익성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시장에서도 공급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메사비 투자 발표 당일 미국 철강사 뉴코어 주가는 1.1% 하락했다. 미국 매체 24/7 Wall St.는 메사비의 신규 제철소가 뉴코어와 클리블랜드·클리프스 등 기존 업체에 가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대제철은 현대차·기아의 미국 생산거점을 주요 수요처로 두고 있어 메사비 등 신규 설비와는 수요 기반에 차이가 있다.

이재운 연구원은 “세부 품목별 수요를 정교하게 살피는 동시에 생산능력 확대에 대응해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metro

현대차그룹, 고속도로 충전 인프라 고도화

도로공사 MOU… 피지컬 AI 실증도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도로공사와 전국 고속도로의 차세대 충전 인프라와 피지컬 AI 기술 실증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30일 서울 현대차·기아 양재사옥에서 도로공사와 ‘고속도로 기반 차세대 지능형 충전 인프라 및 피지컬 AI 기술 연구·실증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차그룹은 고속도로라는 대규모 실의 인프라에서 차세대 충전 기술과 피지컬 AI 기술을 통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휴게소를 충전 신기술의 거점으로 삼는 ‘고속도로 휴게소 차세대 지능형 충전 인프라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또 그룹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이 투자한 스타트업과 연계해 피지컬 AI 기반 고속도로 안전 유지관리 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현대차그룹의 사업 경험과 도로공사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미래 도로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 후 현대차그룹이 개발·운영 중인 관수·보안·배출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조성민 도로교통연구원장(왼쪽)과 현대차그룹 미래전략본부장 정호근 부사장이 지난 달 30일 현대차·기아 양재사옥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기반 차세대 지능형 충전 인프라 및 Physical AI 기술 연구·실증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로봇 시연을 참관하고 이를 고속도로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대차그룹 정호근 미래전략본부장(부사장)은 “로봇과 모빌리티 기술은 실제 현장에서의 검증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된다”며 “도로공사가 보유한 전국 고속도로 인프라는 현대차그룹의 충전 기술은 물론 제로원이 투자한 스타트업의 피지컬 AI 기술까지 대규모로 실증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엔솔, 원통형 배터리 북미 공급 확대

인디고테크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전기 상용차 스타트업 인디고테크(indiGO Tech)와 손잡고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의 북미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차세대 전기 상용차에 배터리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차량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협력을 병행해 북미 상용차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인디고테크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0년 설립된 인디고테크는 물류·배송과 차량 호출 서비스 등에 활용할 전기 상용차를 개발하고 있다.

양사는 인디고테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전기 상용차 ‘플로 라이드(Flow Ride)’와 ‘플로 카고(Flow Cargo)’ 등에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셀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공급계약 협의를 함께 진행거리 연장과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 협력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디고테크는 차량 개발에 필요한 배터리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에서 46시리즈 공급 실적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북미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46시리즈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성환 LG에너지솔루션 소형전지사업부 마케팅그룹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다양한 전기 상용차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46시리즈 사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국내외 칠러 생산 확대… 1500억 투입

美 공장 신설·국내 설비 고도화 추진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사업 강화

LG전자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 수요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칠러(chiller)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국내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글로벌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칠러부터 액체냉각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앞세워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미국 공장 신설과 국내 생산라인 증설 및 생산설비 고도화에 총 15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칠러 생산능력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 생산을 목표로 미국 버지니아주 윈저에 연면적 3만2000㎡, 부지면적 17만㎡ 규모의 칠러 생산공장을 구축한다. 신규 공장에서는 AI 데이터센터에 주로 공급되는 공랭식 칠러를 생산할 예정이다. 칠러는 차가운 물을 대량으로 만들어 데이터센터 등의 열을 식히는 핵심 냉각 설비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라 칠러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용 칠러 시장은 지난해 8억4100만달러에서 올해 8억9180만달러, 2033년 14억505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북미는 지난해 전체 시장 매출의 56.6%를 차지했다. 옴디아도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용량이 올해 226기가와트(GW)에서 2030년 420GW로 늘고, 이 가운데 60%가 북미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LG전자가 버지니아주에 생산거점을



LG전자 고성능 칠러 등 냉각 솔루션이 적용된 가상의 AI데이터센터 이미지.

/LG전자

마련한 것도 북미 AI 데이터센터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버지니아주는 글로벌 빅테크의 데이터센터가 밀집해 ‘데이터센터 벨리’로 불리는 지역이다. LG전자는 현지 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내 생산능력도 확대한다. LG전자는 평택과 창원 공장에 공랭식 칠러 생산라인을 새로 구축하고 첫 공정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하나의 컨베이어에서 진행하는 흐름라인 생산방식을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흐름라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여러 생산라인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계획이다.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사업도 강화한다. LG전자는 칠러부터 냉각수분배장치(CDU), 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직접 흡수하는 플레이트까지 연결하는 ‘칩 투 칠러(Chip to Chiller)’ 솔루션을 갖추고 관련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고밀도 CPU와 GPU

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만큼 발열 관리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LG전자는 공랭식·수랭식 냉각 솔루션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와 전력 인프라 솔루션까지 결합해 데이터센터 고객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북미에서는 초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에서는 계열사 역량을 결합한 ‘원(One) LG’ 전략으로 사업 기회를 넓힌다.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그룹이 자카르타에 구축 중인 초거대 AI 데이터센터에는 LG전자의 냉난방공조기술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솔루션, LG CNS의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 역량 등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LG전자 이재성 ES사업본부장 사장은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인프라인 냉각 솔루션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지속 강화해 급증하는 시장 수요를 적극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2 시리즈 공개

어도비 포토샵 기본 탑재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 S12’에 안드로이드 태블릿 최초로 어도비 포토샵을 탑재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편집과 문서 작업 기능도 강화해 콘텐츠 소비 중심이던 태블릿의 활용 범위를 업무와 창작으로 넓힌다.

삼성전자는 1일 ‘갤럭시 탭 S12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2+’를 공개했다. 신제품은 오는 7월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선보인다.

신제품의 가장 큰 변화는 포토샵 탑재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포토샵이 기본 탑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대화면과 S펜에 맞춰 사용 환경을 최적화해 PC 없이 이미지 편집과 드로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성형 AI도 포토샵에 적용했다. 어도비의 생성형 AI ‘파이어플라이(Firefly)’



갤럭시 탭 S12 시리즈.

/삼성전자

를 활용해 이미지 일부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미지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울트라 모델은 14.6형 화면과 5.1mm 두께를 적용했다. 동영상 재생 기준 배터리 사용시간은 최대 23시간이다. 갤럭시 탭 S12+는 전작보다 화면을 키웠으며 최대 21시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출고가는 갤럭시 탭 S12 울트라가 189만9700원부터 시작하며 갤럭시 탭 S12+는 154만9900원부터다.

/구남영 기자